

##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 Development of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for Mothers with School-age Children

정계숙(Kai-Sook Chung)<sup>1</sup>, 고은경(Eun-Kyung Goh)<sup>2</sup>, 박희경(Hee-Kyung Park)<sup>3</sup>, 차지량(Jee-Ryang Cha)<sup>4\*</sup>

<sup>1</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4</sup>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for mothers with school-age children.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e study found that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could be divided into parenting competence, self-system competence, and social competence. In addition, the scale comprised three factors consisting of 43. The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behavior event interview(BEI), focus group interview(FGI), and three times Delphi investigation. The scale for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sisted of a total of 129 items, which included three different dimensions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and four factors were extracted from factor analysis following a survey of 362 mothers. The factors were labeled as "ability of developmental positive parenting," "ability of playing a role as a citizen and making social contributions," "ability of self-under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bility of self-growth and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showed an appropriate level of construct validity, reliability of the scales, distribution of item response, and item discrimination.

---

▲주제어(Key Words) : 부모 참 역량(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학령기 자녀의 어머니(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척도개발(development of scale)

#### I. 서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이전의 전통적인 사회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사회가 근대적인 산업국가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머니의 높은 경제참여율과 관련하여 과거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아버지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로 양분되었던 전통적 혼인은 점차 직

업과 양육에서 부부의 동등한 역할을 강조하는 평등한 혼인으로 변화되었다(Peake & Harris, 2002).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자녀 양육역할에서 차지하는 어머니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Schwalb, Nakawaza, Yamamoto, & Hyun, 2004)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인 경우 자녀 양육과 가사로 남성보다 더 많은 역할 과부하를 경험하고 있다(Cinnamon & Rich, 2002; Gilbert & Brownson, 1998). 특히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의식과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구로 인해

• 본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168).

\* Corresponding Author : Jee-Ryang Cha, 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alwol-dong,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Tel: +82-10-2862-5309, E-mail: lemon611@naver.com

어머니들은 단순히 자녀를 ‘낳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키우는 것’이 강조되면서(A. Cho, 2005) 자녀교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역할은 더욱 과중해지고 주도적인 반면 아버지들은 수동적인 학습 대상자로 남아있다(J. Yang & Y. Shin, 2013).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면서 경력 단절을 경험한 후 재취업을 희망하거나(M. Min, E. Oh & S. Lee, 2010; Statistic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마찬가지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자원봉사와 같은 집단적인 활동에 참여하고(S. Lee, 2004) 지역사회 문화활동(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5)에 참여하려는 어머니들이 증가하면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어머니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의 양육자이자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한 개인으로서 현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이전 시대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역량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최근까지 정교해지면서 확대되었다. 초기 역량 개념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한 개인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능력이라는 넓은 개념으로도 정의되어 왔지만(White, 1975), 평범한 수행과는 구별되는 성공적인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수행자의 특성들(McClelland, 1973)로도 정의되어졌고, 나아가 동기, 성격 등 정의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정의되어졌다(Spencer & Spencer, 1993). 그동안 역량이라는 용어는 직무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문제해결이나 적응적인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K. So, 2007). 이러한 배경에서 부모 역량(parental competence)이라는 개념은 부모의 개인적 차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참여 능력까지도 포함하게 되었고(Etzioni, 1993; Vincent, 1996), 부모교육 분야에서도 생애사적인 발달과정에서 성인 학습자로서 부모가 갖는 능력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K. Chung & E. Choi, 2013).

부모 역량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자녀양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서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일반아동을 위한 부모 역량이 주로 자녀의 양육자 역할에 국한되어 사용되어온(H. Park & H. Koo, 2010; M. Hyun, 2004; H. Choi & O. Chung, 2001; Gilmore & Cuskelly, 2008; Jones & Prinz, 2005; Turnbull & Turnbull, 1997) 반면, 장애아동 가족, 다문화 가족,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부모 역량은 양육활동 이외의 역량까지 포괄하고 있다. 먼저 장애아동의 부모 역량은 가족관계나 사회지원 서비스와 관련되는 역량이 부가되었다. 구체적으로 H. Kim (2007)은 양육활동뿐 아니라 가족상호작용, 신체/물리적 안정, 정서적 안정, 그리고 장애 관련 서비스를, S. Yang(2000)과 J. Seol(2005)은 부모의 자기 효능감과 대처능력을 공통적

으로 제시하고, 각각 체계옹호와 상호지지·협력을 통한 참여를 부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J. Park, B. Seo and H. Kim(2011)은 부모의 핵심역량으로 양육태도, 양육지식, 양육기술, 양육효능감뿐 아니라 가족협력 및 사회협력 능력까지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K. Chung and E. Choi (2013)의 부모 참여 역량 개념과 요인들을 바탕으로 한 J. Park, B. Seo와 E. Kim(2013)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역량 구인 요소로 ‘사회적 역량’, ‘자기체계 역량’, ‘양육기반 역량’, ‘양육수행 역량’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족의 부모 역량도 사회·문화적 체계와 무관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대표적으로 Ogbu(1981)에 따르면 하나의 문화생태계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축적되고 진화된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 부모의 역량은 사회·문화적 체계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부모 역량을 개인적 차원에 제한하여 어머니 개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 양육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B. Kim, 2011; E. Lee, 2013). 마지막으로, 여성 한 부모 가족은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자녀양육이나 개인적 차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대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부모 역량을 확장 제시하거나(J. Kwon & I. Seo, 2008),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과제와 연결하여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다(Y. Choi & J. Huh, 2006). Booth와 Booth (1994)도 부모 역량을 단순히 부모역할 기술 습득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문가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드러내고 사회적 지원을 끌어냄으로써 더 좋은 사회적 실적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이는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가족 중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까지 포함한다면 사회적 역량으로서의 부모 역량의 개념은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끌어들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익이나 변화에 기여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사회적 능력은 장애아동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이 구비해야 할 부모 역량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 Chung and E. Choi(2013)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역량 구성요인을 양육 차원과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외연을 확대한 「부모 참여 역량」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한편, 부모를 둘러싼 가족-생태 체계는 시간 차원의 변화에 따라 아동이 성장함으로써 부모 역량의 하위요인들이 갖는 상대적 중요도가 변화되거나 상호관련성이 복잡해질 수 있다. 즉, 부모 역량은 자녀의 발달로 인한 능력과 욕구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Teti & Candelaria, 2012).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첫째, 학령기 발달상의 특징에 따라 부

모에게 요구되는 양육능력이 달라진다. 먼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근력이 생기고 복잡한 운동기술을 발휘하는 신체 발달과 이 시기의 인지 및 사회적 발달이 맞물려 집단 신체활동 참여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유능성을 배우고(Fletcher, Nickerson, & Wright, 2003) 새로운 규칙의 게임을 창조해 낸다(Kirchner, 2000). 이 시기에 부모는 자녀들이 집단 신체활동에서 공정하게 규칙을 따르고 전략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Berk, 2009). 다음으로, 학령기는 인지적으로 구체적 조작단계로서 논리적인 사고력이 발달하고(Piaget, 1952), 지능의 다양한 측면이 발달하는 시기이다(Gardner, 1993). 부모는 아동의 인지적 성취를 고무하고 아동이 지닌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지능의 발달을 도와야 한다. 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는 본격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애쓰게 되는데, 특히 한국의 부모는 서구와 미국의 부모에 비해 학업적 성취가 타고난 능력이라기보다는 노력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따라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경제적·시간적 투자를 더 많이 한다(Stevenson, Lee, & Mu, 2000). 또한 자녀교육에 있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징(J. Yang & Y. Shin, 2013)으로 인해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기여하면서도 전인발달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점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의 주요한 양육 이슈가 된다. 마지막으로 학령기는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 근면성과 열등감의 심리적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Erikson, 1950). 또한 학령기의 인지적 발달과 맞물려 아동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또래와 비교하고 타인의 피드백을 근거로 객관적인 자기개념(Harter, 2003)이 세분화되고 위계적인 자기존중감(Van Den Bergh & De Rycke, 2003)을 발달시키게 되므로,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방식(Carlson, Uppal, & Prosser, 2000), 아동과의 공동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공동 통제(coregulation)(MacCoby, 1984),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Kuczynski & Lollis, 2002) 등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를 촉진한다. 따라서 부모는 이전 시기보다 더 자녀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의 사회화에 대한 부모의 욕구와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담은 청소년기 보다는 덜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부모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자아개념,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관 등을 내면화해야하고 이러한 고등 사고와 가치관의 발달에 있어 여전히 부모의 지지나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래지지에 대한 욕구나 그 영향력도 커지게 되고 사회생활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전보다 더욱 독립적이고 싶어 하므로

(Furman & Buhrmester, 1992) 유아기 때보다 부모의 통제는 줄어들는다(M. Kim, 1994). 특히,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에 의한 통제는 완만히 줄어들지만 미래의 성공을 위한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은 초등학교 때부터 매우 높아 학년이 올라가도 낮아지지 않으며(Y. Park & U. Kim, 2000), 이는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든다(Y. Park & U. Kim, 2001, Y. Park, U. Kim, & M. Kim, 2002). 또한 유아기와 달리 학령기의 자녀가 자기 생각과 주장을 보다 뚜렷하게 가지게 되면서 부모-자녀 간에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와 갈등을 겪는 일(B. Seo, 2013)이 많아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M. Kim, 2005). 부모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데(S. Yang & C. Shin, 2011), 학령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에서도 성장기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적 발달의 이해 및 상호작용, 분노 조절과 관련된 요구가 많았던(S. Lee, C. Kwan, & H. Lee, 2009) 것도 학령기 자녀의 부모가 갖는 심리적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셋째, 자녀가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부모 자신의 발달과업도 달라진다. Galinsky(1987)의 부모발달 단계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녀를 임신하면서 '부모상 정립 단계', 자녀가 영아기에 이르면 '양육 단계', 유아기에 이르면 '권위 단계', 그리고 자녀가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해석 단계(the interpretive stage)'에 접어들게 된다. 해석 단계에서 부모의 과업은 자녀에게 세상을 설명해 주면서 자녀가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자아개념을 재평가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부모상과 자녀상의 불일치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의 계획대로 자녀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객관적이고 성숙한 자세를 통해 각자의 정체감을 재형성하게 된다. 학령기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분리가 시작되는 시기로, 부모들은 이전보다 자녀에게 점점 '손을 놓게 되는' 단계(Berk, 2009)가 되면서 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개발과 사회적 참여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M. Yoo, J. Cha and K. Chung(2013)의 연구에서도 학령 아동의 어머니는 어떤 행복의 요소보다 자기 계발과 목표 추구 요소에서 스스로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유아기 보다 성숙해진 자녀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사회화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양육자 역할과 학업성취를 위한 교육자 역할 측면의 전형적인 부모 역량이 요구됨을 알았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부모 역량의 한 요인으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으나(K. Chung & E. Choi, 2013),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의 복합적인 역할 수행과 상대적으로 잦아진 자녀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속에서도 자신의 심리적인 안녕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자기 이해, 성장 및 개발을 추구하는 자기체계 역량, 그리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따라 보다 폭넓어진 자신의 대인관계와 더불어 학교 및 사회기관에의 참여와 기여 기회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역량 등, 복합적인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로서,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인으로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역량 요인을 포함한 새로운 개념의 부모 역량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쟁적, 성취적 지향의 분위기 속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진정한 부모 역량이라는 뜻에서 「부모 참 역량」으로 명명되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부모 참 역량」측정도구가 개발된(K. Chung & E. Choi, 2013) 바 있다. 연구 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부모 참 역량」의 구인으로 발달적·긍정적 양육 능력,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능력, 자율적 행동 조절 능력, 공동체생활 능력, 자기 성장·관리 능력 등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학령기 자녀의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부모 참 역량」의 구인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구인이 밝혀지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K. Chung, M. Yoo, J. Cha, & H. Park, 2013)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합적인 요인의 부모 역량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 참 역량」척도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를 개발하고 그 적절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부모 역량을 자녀양육 능력에 국한하지 않고 부모를 넘어 개인적 욕구와 심리적 성장이라는 발달과업을 지닌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이해 및 사회적 참여와 기여의 욕구와 능력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인 「부모 참 역량」으로 개념화하고, 학령기 자녀의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부모 참 역량」척도를 개발하여 그 타당도와 양호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이해 및 부모 역량에 대한 연구 범위를 확장시키고, 나아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등 양호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의 문항 반응분포와 문항변별도 등 문항 양호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부모 참 역량」척도를 개발하고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A시와 인근 중소도시인 B시와 C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총 36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0.6세였고, 40세-45세 미만이 178명(49.2)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87명(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 유무는 있는 경우가 184명(50.8)이고 없는 경우가 178명(49.2)으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가계 월 평균 소득은 601만원 이상인 경우가 155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세-11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장 많았다. 자녀 성별은 남아 174명(48.0)이고 여아 188명(52.0)이었고,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251명(69.3)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 2. 연구도구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 참 역량」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행위사건 인터뷰, 초점집단면접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해 역량 요인과 하위요소를 추출한 제 3차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용 「부모 참 역량」척도 시안을 사용하였다. 「부모 참 역량」은 크게 양육역량 16개, 자기체계 역량 14개, 사회적 역량 13개의 하위요소로 이루어졌으며, 각 역량 하위요소는 각각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29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항목은 자신이 각 문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중심 집중 요류를 방지할 수 있는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 시안의 내용과 문항 수는 <Table 2>와 같다.

### 3. 연구절차

1)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 시안 개발

(1)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척도 시안 구성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부모 역량 및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

Table 1. The Materna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Mother's age	under 35 years old	8	2.2
	35years old - 39years old	132	36.5
	40years old - 44years old	178	49.2
	45years old - 49years old	34	9.4
	50years old - 54years old	9	2.5
	above 55years old	1	.3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101	27.9
	university	187	51.7
	above graduate school	74	20.4
Maternal employment	employment	184	50.8
	unemployment	178	49.2
Monthly family income	less 2,00,000won	24	6.6
	2,010,000won - 3,000,000won	39	10.8
	3,010,000won - 4,000,000won	55	15.2
	4,010,000won - 5,000,000won	49	13.5
	5,010,000won - 6,000,000won	30	8.3
	above 6,010,000won	155	42.8
	non response	10	2.8
Child's age	8years old - 9years old	92	25.4
	10years old - 11years old	180	49.8
	12years old - 13years old	90	24.8
Child's gender	boy	174	48.0
	girl	188	52.0
Number of children	1	52	14.4
	2	251	69.3
	above 3	59	16.4
Total		362	100

토하여 본 연구에서의 「부모 참 역량」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K. Chung과 E. Choi(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인간의 역량을 인식 도구(cognitive tools), 자기 체계(self system), 사회 정서적(social/emotional) 역량으로 본 OECD DeSeCo 프로젝트 관련 연구(Rychen & Salganik, 2001, 2003)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감(Ryff, 1989)을 토대로 부모 역량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부모 참 역량」은 양육 역량, 자기체계 역량, 사회적 역량 등 세 영역의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양육 역량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양육과 교육을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자기체계 역량은 한 개인으로서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징과 성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량은 한 사회인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에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기여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구체적으로 역량 영역별로 하위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양육 역량의 하위요소로는 '자녀 발달 특징과 욕구 이해', '자녀 학습 과정과 원리 이해', '부모-자녀 관계 이해하기', '또래관계 이해하기', '학교와 가정과의 관계 이해하기', '양육 효능감 및 만족감 갖기', '민주적 양육 지향하기'가 도출되었다. 자기체계 역량의 하위요소로는 '개인으로서 자기 이해·수용하기', '배우자로서 자기 이해·수용하기', '자아존중감 가지기', '자기 결정 능력 갖기',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해결하기', '자기 삶의 방향·목표 설정 및 실천하기', '낙관적 태도 갖기'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역량의 하위요소로는 '공정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친사회적 행동하기', '타인에 관한 신뢰감 갖기', '협력하기', '정직·공정하기'가 도출되었다. 이를 도출하는데 참고한 문헌들은

Table 2. The Domains and Components of the Preliminary Scale

Domains	No. of Components	and Meanings
Parenting competence (48 items)	1	understanding character and needs of child's development
	2	understanding child's learning principle and contents
	3	understanding of parent-child relationship
	4	understanding peer relationship
	5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family
	6	having healthy parental view
	7	direction and goal setting of children's life and parenting
	8	having patience
	9	having parenting efficacy and satisfaction
	10	knowing importance of parenting practice rethinking
	11	trusting and waiting a child
	12	orienting democratic parenting
	13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
	14	reactive and empathic parenting
	15	developing child's life career
	16	offering environment of support development and learning
Self-system competence (42 items)	1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individual
	2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parent
	3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spouse
	4	having self-esteem
	5	expressing and regulating emotion properly
	6	having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7	acting independently
	8	acting actively
	9	solving problems in self-directed
	10	setting and practicing direction and goal of life
	11	having an optimistic attitude
	12	developing strength and competence
	13	reflecting self consistently
	14	having individual achievement
Social competence (39 items)	1	knowing importance of personal relationship across a life span
	2	having values of happy relationship
	3	interacting positively
	4	acting prosocial behavior
	5	having trust in others
	6	developing happy family culture
	7	involving in surrounding problem- solving actively
	8	using and developing surround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
	9	developing ability and opportunities of surrounding environment control
	10	having community spirit
	11	cooperating
	12	being fairing and honest
	13	voluteering in society
Total		129 Items

Table 3. References Related to the Components of Parental Competence

Researchers	Components of Parental Competence
K. Kang(2009)	understanding of child's character, parental view, growth of child and parent
H. Kim(2007)	family interaction, parenting, physical stability, emotional stability, related services for disability
J. Kwon & I. Seo(2008)	individual level(strength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potential, information offering, understanding and integration of experiences), interpersonal level(group utilization, activity of resource access, mutual support), socio-political level(group utilization, edification of critical consciousness, self-advocacy Abilities, networking skill, change encouragement through participation)
J. Seol(2005)	self-efficacy, coping competency, system advocacy
J. Park, B. Seo, H. Kim(2011)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kill, family cooperation, parenting efficacy, social cooperation
H. Park & H. Koo(2010)	parenting knowledge, skill, parent-child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coping skill
Y. Son(2002)	family integration · cooperation and positive context definition of situation, social support · self-esteem · psychological stability, direct problem solving effort through counseling with specialist and contact with other parents
K. Song(2000)	knowledge, ability, self-efficacy
S. Yang(2000)	self-efficacy, coping ability of problem solving, participation through mutual support · cooperation
M. Lee(2011)	self-efficacy, self-esteem, stress coping ability, family cooperation ability, social support
K. Chung, J. Kim, M. Kim(2003)	parenting skill · attitude · style, stress coping ability, support acquisition
J. Jeong, J. Park(2010)	enhancing knowledges, psychological support, leisure utilization, providing of job information
H. Choi, O. Chung(2001)	self-efficacy, healthy parent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teaching ability, discipline ability
M. Hyun(2004)	parenting role, management role, development stimulus role
Rychen & Salganik(2001, 2003)	cognitive tool competency, self system competency, social competency
Gilmore & Cuskelly(2008)	parenting satisfaction,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interesting
K. Chung & J. Roh(2006), Holden & Hwak(2003)	reflective thinking of parenting
Jones & Prinz(2005)	self-efficacy, parenting behavior, parental mental function
Kuczynski(2003)	agent function in parenting
Turnbull & Turnbull(2007)	motivation, knowledge · skill

<Table 3>과 같다.

(2) 부모 행위사건 인터뷰 및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부모 참 역량」이 높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행위사건인터뷰(Behavior Event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 양육에 대해 높은 수행을 보이는 어머니를 선정하기 위해 400명의 어머니에게 K. Chung et al.(2012)이 개발한 부모 행복감 척도를 실시한 후 행복감이 상위 10%내에 속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J. Ahn(2000)이 변안한 양육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여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이 모두 높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5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1년 11월 24일에서 2011년 12월 2일까지 행위사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인 행동과 생각, 태도, 방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잘 했다고 느꼈던 상황에 대해 말씀주세요.',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갖추어야하는 특성을 말씀해주세요.', '아이를 잘 양육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어떠한 태도와 삶의 방식들이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등을 질문하였다. 모든 내용은 녹취한 후 전사하여 박사 1명과 박사수료자 1명이 함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 역량의 하위요소인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활용하기, '자녀에 대해 믿고 기다려주기', '발달, 학습 지원 환경 제공하기' 그리고 자기체계 역량의 하위요소인 '개인적 성취감 갖기'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역량에서는 '전생애적 대인관계의 중요성 알기', '행복한 관계에 대한 가치관 가지기',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하기'가 도출되었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요인과 요소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교육학 박사를 취득한 교수 2명, 교육학 또는 아동학 박사 2명, 교육학 또는 유아교육학 박사수료자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12년 2월 10일 3시간 동안 실시된 전문가 초점집단 면담에서는 '「부모 참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개방형 질문을 하였고, 이 질문들은 하루 전 참여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 모든 내용은 녹취한 후 전사하여 박사 1명과 박사수료자 1명이 함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 역량의 하위요소인 '건강한 부모관 갖기', '자녀의 삶과 양육의 방향, 목표 설정하기', '인내심 갖기', '양육 수행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 알기', '반응적·공감적 양육하기', '자녀 생애 진로 개발하기'와 자기체계 역량 하위요소인 '부모로서 자기 이해·수용하기', '적절한 정서표현·조절하기', '강점 및 역량 개발하기', '지속적인 자기 성찰하기' 그리고 사회적 역량의 하위요소인 '주변의 문제 해결에 적극 관여하기', '주변 환경 조절 능력과 기회 개발하기', '공동체 정신 가지기', '사회봉사하기'가 새롭게 추가로 도출되었다. 부모 행위사건 인터뷰와 전문가 초점집단면담을 바탕으로 1차 시안을 수정, 보완하여 2차 시안을 완성하였다.

### (3) 델파이 조사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의 초안에 대한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에서 부모교육 관련 전공의 현직교수로 구성된 20명의 부모교육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이메일을 통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문헌연구, 행위사건인터뷰,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도출된 「부모 참 역량」요인과 하위요소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보완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바탕으로 구성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편차를 줄이고 각 구성요인들이 「부모 참 역량」구인을 대표하는지 재확인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유아나 청소년 어머니의 경우와 비교해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참 역량 요인으로 특히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양육 역량 요소 중 '관련 정보 수집 및 활용하기'를 삭제하여, 양육 역량 16개 요소, 자기체계 역량 14개 요소, 사회적 역량

13개 요소로 3차 시안을 완성하였다.

### 2) 척도의 문항 개발

3차 시안을 토대로 총 43개 「부모 참 역량」요소 각각에 대하여 일반적인 역량 요소로 알려진(J. Yi, 2002; Sparrow, 1996) 지식, 기술 및 태도 차원에 대한 문항을 각 하나씩 포함시켰다. 이는 개인의 역량에는 어떤 사실을 알고 정보를 보유하는 지식 요소, 실제 경험이나 연습을 통해 습득된 기술,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에 대한 열성과 헌신, 긍정적인 자세와 같은 태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식, 기술, 태도 차원에서 각 1문항씩 개발한 후 개발된 문항을 총 4명의 유아교육, 교육학, 아동학 전공 연구자 및 총 3명의 아동학 및 유아교육 전공 박사과정 수료생이 검토하여 총 43개 하위요소에 3문항씩 총 129문항으로 「부모 참 역량」척도 시안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 3) 예비조사

개발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부모 참 역량」척도 시안을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말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도와 문항 응답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보다 쉽게 수정하였다.

### 4) 본 조사

최종 본 조사는 2012년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1개 대도시와 2개 중소도시에서 임의 선정된 초등학교 총 3곳에 「부모 참 역량」척도 시안 총 500부를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배포하였다. 척도의 총 문항이 129개로 많아 74%의 회수율을 보여 370부가 회수되었으나 누락된 응답이 많거나 중복 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362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18.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하위요소별 평균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역량 총점과 하위요소별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문항 양호도는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문항 변별도는 부모 참 역량 총점을 기준으로 상, 하위 각각 약 33.3%에 해당하는 상위집단 및 하위집단을 나누어 각 하위요소별로 t검정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척도의 양호도

1) 척도의 타당도 분석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43개 요소별 평균을 구한 후 잠재적 구인을 알아보고자 예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틀에 따라 3요인 고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이겐 값이 1.0 이상인 요인이 4개로 추출되었고 공통성 값이 .50 이하로 나타난 요소가 4개 있었으며(자녀의 기본적인 학습 원리와 내용 이해, 또래관계 이해하기, 낙관적 태도 갖기 및 주변 환경 조절 능력과 기회 개발하기), 3개 요인에 모두 .30 이상의 교차 적재가 나타난 요소가 9개로 나타나 요인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은 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 4개 요소를 제거하고 아이겐 값을 기준으로 최종 39개 문항의 요인구조를 밝히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총 39개 하위요소에 대해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한 결과, .969의 값을 얻어 본 척도가 요인분석에 적절한 문항들로 구성되

었음을 검증하였다. 베리맥스회전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 값이 1.0을 초과하는 4개의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추출된 4개 요인들의 전체 설명 변량은 62.197%며, 요인별로는 요인1이 14문항으로 20.392%, 요인 2가 9문항으로 14.832%, 요인 3이 8문항으로 13.568%, 요인 4가 8문항으로 13.404%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인 1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다른 요인들도 「부모 참 역량」을 골고루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 중에서 요인1은 아동의 발달 관련 지식과 적절한 양육방법 관련 내용 요소들로 구성되어 '발달적·긍정적 양육 능력'으로, 요인2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 관련 요소가 포함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사회기여 능력'으로 명명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인 관계 형성 관련 요소가 포함된 요인3은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요인4는 적극적인 자기 결정 행동과 자기 성장 지향성 관련 요소로 구성되어 '자기 결정 및 자기 성장 능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총점과 하위요소를 및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자기 요인과 하위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Table 4. Factor Analysis for Items(components) of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Factors	No. of Components	Meanings of Components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h <sup>2</sup>
	parenting 3	understanding of parent-child relationship	.75	.22	.22	.18	.70
	parenting 7	direction and goal setting of children's life and parenting	.73	.22	.18	.32	.72
	parenting 6	having healthy parental view	.73	.31	.26	.21	.74
	parenting 1	understanding character and needs of child's development	.70	.15	.09	.16	.55
	parenting 9	having parenting efficacy and satisfaction	.70	.18	.21	.39	.72
	parenting 8	having patience	.69	.10	.37	.21	.66
①	parenting 14	reactive, empathic parenting	.68	.14	.30	.31	.67
	parenting 12	orienting democratic parenting	.68	.18	.32	.22	.65
	parenting 13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	.67	.17	.28	.31	.65
	parenting 11	trusting and waiting a child	.65	.16	.35	.21	.61
	parenting 16	offering environment of support development, learning	.65	.22	.33	.35	.69
	parenting 5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family	.57	.34	.12	.13	.47
	parenting 10	knowing importance of parenting practice	.51	.26	.42	.13	.52
	parenting 15	developing child's life career	.50	.24	.17	.45	.53

continued

Factors	No. of Components	Meanings of Components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h <sup>2</sup>
②	social 11	cooperating	.31	.68	.33	.28	.74
	social 13	volunteering in society	.27	.67	.15	.23	.60
	social 7	involving in surrounding problem-solving actively	.15	.67	-.05	.29	.60
	social 10	having community spirit	.31	.66	.32	.27	.70
	social 5	having trust in others	.26	.61	.40	.21	.65
	social 12	being fairing and honest	.22	.59	.49	.31	.69
	social 4	acting prosocial behavior	.30	.58	.48	.14	.67
	social 8	using and developing surround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	.30	.57	.18	.46	.65
social 6	developing happy family culture	.37	.51	.50	.18	.67	
③	self-system 3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spouse	.31	.16	.63	.40	.68
	self-system 4	having self-esteem	.31	.22	.62	.47	.75
	social 2	having values of happy relationship	.25	.54	.62	.09	.74
	self-system 2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individual	.36	.10	.61	.43	.69
	self-system 1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parent	.35	.14	.60	.46	.71
	social 1	knowing importance of personal relationship across a life span	.29	.53	.57	.11	.69
	social 3	interacting positively	.34	.51	.56	.19	.72
	self-system 5	expressing and regulating emotion properly	.35	.24	.52	.43	.63
④	self-system 7	acting independently	.21	.22	.25	.73	.70
	self-system 6	having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27	.28	.28	.70	.71
	self-system 9	solving problems in self-directed	.23	.29	.19	.68	.64
	self-system 10	setting and practicing direction, goal of life	.31	.31	.26	.65	.67
	self-system 8	acting actively	.23	.21	.08	.55	.40
	self-system 12	developing strength and competence	.30	.40	.38	.54	.68
	self-system 13	reflecting self consistently	.28	.41	.29	.48	.56
	self-system 14	having individual achievement	.25	.42	.44	.45	.64
Eigen Value			8.77	6.38	5.83	5.76	
Explained Variance (%)			20.39	14.83	13.57	13.41	
Cumulative Variance (%)			20.39	35.22	48.79	62.20	
factor			①	②	③	④	

①ability of developmental · positive parenting ②ability of playing a role as a citizen and social contribution ③ability of self-under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④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growth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Factor Scores, Total Scores and Item Scores

Factors	No. of Components & Meanings	Correlation Coefficients (factor)	Correlation Coefficients (total)	
①	1	understanding of parent-child relationship	.81***	.72***
	2	direction and goal setting of child's life and parenting	.83***	.75***
	3	having healthy parental view	.86***	.78***
	4	understanding character and needs of child's development	.70***	.59***
	5	having parenting efficacy and satisfaction	.84***	.76***
	6	having patience	.79***	.69***
	7	reactive, empathic parenting	.82***	.74***
	8	orienting democratic parenting	.81***	.72***
	9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	.81***	.73***
	10	trusting and waiting a child	.79***	.71***
	11	offering environment of support development, learning	.84***	.78***
	12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family	.67***	.61***
	13	knowing importance of parenting practice	.71***	.67***
	14	developing child's life career	.71***	.69***
	ability of developmental · positive parenting		.91***	
②	1	cooperating	.88***	.80***
	2	volunteering in society	.78***	.67***
	3	involving in surrounding problem-solving actively	.67***	.55***
	4	having community spirit	.83***	.78***
	5	having trust in others	.81***	.74***
	6	being fairing and honest	.84***	.77***
	7	acting prosocial behavior	.81***	.74***
	8	using and developing surround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	.77***	.74***
	9	developing happy family culture	.80***	.78***
	role as citizen and ability of social contribution		.91***	
③	1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spouse	.83***	.74***
	2	having self-esteem	.86***	.79***
	3	having values of happy relationship	.80***	.74***
	4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individual	.81***	.74***
	5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parent	.83***	.76***
	6	knowing importance of personal relationship across a life span	.80***	.74***
	7	interacting positively	.83***	.79***
	8	expressing and regulating emotion properly	.82***	.76***
	self-understanding and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		.92***	
④	1	acting independently	.79***	.68***
	2	having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81***	.74***
	3	solving problems in self-directed	.79***	.69***
	4	setting and practicing direction, goal of life	.83***	.75***
	5	acting actively	.69***	.55***
	6	developing strength and competence	.82***	.79***
	7	reflecting self consistently	.76***	.71***
	8	having individual achievement	.80***	.76***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growth		.89***	

\*\*\* $p < .001$

①ability of developmental · positive parenting ②ability of playing a role as a citizen and social contribution ③ability of self-under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④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growth

「부모 참 역량」총점과 각 하위 요소들 간의 상관계수는 .55-.80의 범위에서 모두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하위요소는 ‘협력하기’였으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하위요소는 ‘주변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와 ‘능동적으로 행동하기’였다.

각 요인과 하위요소들 간의 상관계수는 .67-.88의 범위에서 모두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하위요소는 ‘협력하기’였으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하위요소는 ‘학교(교육기관)와 가정과의 관계 이해하기’, ‘주변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였다.

「부모 참 역량」총점과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89-.92의 범위에서 모두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요인은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요인은 ‘자기 성장 및 자기 결정 능력’이었다.

이와 같이 「부모 참 역량」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총점 및 추출된 요인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다음으로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척도 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패널 20명에게 3차에 걸쳐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로 입증된다. 이를 통해 부모 참 역량에 있어 3가지 역량과 각 하위요소의 적절성, 각 요인들의 상호

배타성, 요인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다른 연령대 자녀에 비해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중요한 「부모 참 역량」요인 등에 대해 검토 받아, 3개 역량군의 총 43개 하위요소들이 추출되었고, 각 하위요소를 각각 지식, 기술, 태도 세 가지로 나누어 진술한 총 129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2) 척도의 신뢰도 분석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여 전체 신뢰도와 요인별 신뢰도를 구한 결과 <Table 6>과 같다.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8이었으며,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900-.949로 각 요인별로 문항이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항의 양호도

1) 문항반응분포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의 문항반응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각 요소별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와 각 하위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살펴본 결과, <Table 7>과 같다. 문항들은 대체로 부적 편포를 많이 보이나, 극단적인 평균( $M>5.0$ ,  $M<2.0$ )이나 지나치게 낮은 표준편차( $SD<.50$ )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Table 6.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Factors	Number of Components	Cronbach's $\alpha$
ability of developmental · positive parenting	14	.949
ability of playing a role as a citizen and social contribution	9	.928
ability of self-under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8	.931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growth	8	.900
total	39	.980

Table 7. The Distribution of Item Responses of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Factors	Components/Items	Frequency of Percentage							M	SD	
		non	1	2	3	4	5	6			
①	p3	1	0(0)	0(0)	1(3)	61(16.9)	181(50.0)	95(26.2)	24(6.6)	4.22	.81
		2	0(0)	0(0)	3(8)	53(14.6)	204(56.4)	77(21.3)	25(6.9)	4.19	.80
		3	0(0)	0(0)	1(3)	17(4.7)	152(42.0)	139(38.4)	52(14.4)	4.62	.80
		total								4.34	.70

continued

Factors	Components/Items	Frequency of Percentage							M	SD
		non	1	2	3	4	5	6		
p7	4	0(0)	0(0)	0(0)	43(11.9)	192(53.0)	106(29.3)	21(5.8)	4.29	.75
	5	0(0)	0(0)	2(.6)	44(12.2)	185(51.1)	108(29.8)	23(6.4)	4.29	.78
	6	0(0)	0(0)	1(.3)	40(11.0)	182(50.3)	105(29.0)	34(9.4)	4.36	.81
	total								4.31	.66
p6	7	0(0)	0(0)	1(.3)	33(9.1)	208(57.5)	93(25.7)	25(6.9)	4.30	.74
	8	0(0)	0(0)	1(.3)	49(13.5)	198(54.7)	90(24.9)	23(6.4)	4.24	.77
	9	0(0)	0(0)	2(.6)	14(3.9)	176(48.6)	135(37.3)	35(9.7)	4.52	.75
	total								4.35	.64
p1	10	4(1.1)	4(1.1)	0(0)	63(17.4)	199(55.0)	76(21.0)	16(4.4)	4.10	.83
	11	3(.8)	2(.6)	3(.8)	56(15.5)	212(58.6)	70(19.3)	16(4.4)	4.09	.78
	12	2(.6)	1(.3)	2(.6)	18(5.0)	174(48.1)	121(33.4)	44(12.2)	4.51	.81
	total								4.24	.69
p9	13	1(.3)	0(0)	3(.8)	49(13.5)	208(57.5)	85(23.5)	16(4.4)	4.17	.74
	14	0(0)	0(0)	2(.6)	75(20.7)	216(59.7)	56(15.5)	13(3.6)	4.01	.73
	15	0(0)	1(.3)	17(4.7)	138(38.1)	158(43.6)	37(10.2)	11(3.0)	3.68	.85
	total								3.95	.67
p8	16	2(.6)	1(.3)	1(.3)	6(1.7)	135(37.3)	148(40.9)	69(19.1)	4.76	.81
	17	1(.3)	0(0)	5(1.4)	56(15.5)	190(52.5)	91(25.1)	19(5.2)	4.17	.80
	18	0(0)	0(0)	1(.3)	86(23.8)	181(50.0)	71(19.6)	23(6.4)	4.08	.83
	total								4.34	.68
p14	19	0(0)	0(0)	2(.6)	80(22.1)	194(53.6)	72(19.9)	14(3.9)	4.04	.77
	20	1(.3)	0(0)	2(.6)	59(16.3)	193(53.3)	85(23.5)	22(6.1)	4.18	.79
	21	2(.6)	0(0)	3(.8)	36(9.9)	204(56.4)	96(26.5)	21(5.8)	4.27	.76
	total								4.17	.70
p12	22	0(0)	0(0)	0(0)	39(10.2)	195(53.9)	91(25.1)	39(10.8)	4.36	.81
	23	1(.3)	0(0)	4(1.1)	75(20.7)	187(51.7)	75(20.7)	20(5.5)	4.09	.82
	24	1(.3)	0(0)	2(.6)	69(19.1)	203(56.1)	70(19.3)	17(4.7)	4.09	.77
	total								4.18	.69
p13	25	0(0)	0(0)	1(.3)	78(21.5)	215(59.4)	56(15.5)	12(3.3)	4.00	.72
	26	2(.6)	0(0)	3(.8)	83(22.9)	201(55.5)	61(16.9)	12(3.3)	3.99	.75
	27	1(.3)	0(0)	1(.3)	39(10.8)	211(58.3)	92(25.4)	18(5.0)	4.25	.73
	total								4.08	.65
p11	28	0(0)	0(0)	3(.8)	14(3.9)	177(48.9)	119(32.9)	49(13.5)	4.54	.80
	29	0(0)	0(0)	2(.6)	42(11.6)	190(52.5)	100(27.6)	28(7.7)	4.30	.80
	30	0(0)	0(0)	1(.3)	61(16.9)	205(56.6)	73(20.2)	22(6.1)	4.15	.78
	total								4.33	.68
p16	31	0(0)	0(0)	2(.6)	26(7.2)	210(58.0)	96(26.5)	28(7.7)	4.34	.75
	32	0(0)	0(0)	4(1.1)	37(10.2)	198(54.7)	99(27.3)	24(6.6)	4.28	.78
	33	1(.3)	0(0)	3(.8)	15(4.1)	181(50.0)	121(33.4)	41(11.3)	4.51	.79
	total								4.38	.70

①

continued

Factors	Components/Items	Frequency of Percentage							M	SD	
		non	1	2	3	4	5	6			
①	p5	34	0(0)	2(.6)	4(1.1)	126(34.8)	165(45.6)	53(14.6)	12(3.3)	3.83	.83
		35	0(0)	12(3.3)	20(5.5)	110(30.4)	142(39.2)	53(14.6)	25(6.9)	3.77	1.09
		36	0(0)	3(.8)	10(2.8)	79(21.8)	179(49.4)	63(17.4)	28(7.7)	4.03	.94
		total								3.88	.84
	p10	37	0(0)	0(0)	0(0)	18(5.0)	165(45.6)	125(34.5)	53(14.6)	4.59	.80
		38	0(0)	1(.3)	1(.3)	20(5.5)	177(48.9)	115(31.8)	48(13.3)	4.51	.82
		39	2(.6)	0(0)	1(.3)	23(6.4)	172(47.5)	118(32.6)	46(12.7)	4.51	.81
	total								4.54	.74	
	p15	40	1(.3)	2(.6)	4(1.1)	87(24.0)	175(48.3)	71(19.6)	22(6.1)	4.04	.88
		41	0(0)	1(.3)	4(1.1)	97(26.8)	181(50.0)	58(16.0)	21(5.8)	3.98	.85
		42	1(.3)	0(0)	4(1.1)	36(9.9)	187(51.7)	101(27.9)	33(9.1)	4.35	.83
		total								4.12	.76
	so11	43	0(0)	0(0)	0(0)	26(7.2)	214(59.1)	91(25.1)	31(8.6)	4.35	.74
		44	0(0)	0(0)	2(.6)	28(7.7)	214(59.1)	92(25.4)	26(7.2)	4.31	.74
		45	0(0)	0(0)	1(.3)	29(10.8)	210(58.0)	85(23.5)	27(7.5)	4.27	.76
total									4.31	.68	
so13	46	0(0)	0(0)	2(.6)	55(15.2)	204(56.4)	68(18.8)	33(9.1)	4.21	.83	
	47	0(0)	1(.3)	4(1.1)	119(32.9)	157(43.4)	56(15.5)	24(6.6)	3.92	.92	
	48	0(0)	1(.3)	4(1.1)	79(21.8)	180(49.7)	72(19.9)	26(7.2)	4.09	.88	
	total								4.07	.78	
so7	49	0(0)	2(.6)	5(1.4)	96(26.5)	195(53.9)	53(14.6)	11(3.0)	3.90	.79	
	50	0(0)	4(1.1)	13(3.6)	136(37.6)	157(43.4)	43(11.9)	9(2.5)	3.69	.86	
	51	0(0)	5(1.4)	10(2.8)	106(29.3)	183(50.6)	50(13.8)	8(2.2)	3.79	.84	
	total								3.79	.75	
so10	52	0(0)	0(0)	0(0)	36(9.9)	221(61.0)	78(21.5)	27(7.5)	4.27	.74	
	53	0(0)	0(0)	1(.3)	48(13.3)	216(59.7)	75(20.7)	22(6.1)	4.19	.75	
	54	0(0)	1(.3)	0(0)	45(12.4)	207(57.2)	86(23.8)	22(6.1)	4.23	.76	
	total								4.23	.67	
so5	55	0(0)	0(0)	0(0)	9(2.5)	170(47.0)	124(34.3)	59(16.3)	4.64	.78	
	56	0(0)	1(.3)	1(.3)	58(16.0)	192(53.0)	83(22.9)	27(7.5)	4.20	.83	
	57	0(0)	0(0)	0(0)	23(6.4)	211(58.3)	101(27.9)	27(7.5)	4.36	.71	
	total								4.40	.67	
so12	58	0(0)	0(0)	2(.6)	14(3.9)	195(53.9)	115(31.8)	36(9.9)	4.47	.75	
	59	0(0)	0(0)	0(0)	15(4.1)	186(51.4)	120(33.1)	41(11.3)	4.52	.75	
	60	2(.6)	0(0)	1(.3)	30(8.3)	189(52.2)	98(27.1)	42(11.6)	4.42	.81	
	total								4.47	.70	
so4	61	0(0)	0(0)	1(.3)	11(3.0)	156(43.1)	126(34.8)	68(18.8)	4.69	.82	
	62	0(0)	1(.3)	1(.3)	32(8.8)	171(47.2)	119(32.9)	38(10.5)	4.44	.83	
	63	1(.3)	0(0)	0(0)	20(5.5)	178(49.2)	113(31.2)	50(13.8)	4.53	.80	
	total								4.46	.72	

continued

Factors	Components/Items	Frequency of Percentage							M	SD	
		non	1	2	3	4	5	6			
②	so8	64	0(0)	0(0)	1(.3)	33(9.1)	227(62.7)	80(22.1)	21(5.8)	4.24	.71
		65	0(0)	0(0)	2(.6)	37(10.2)	219(59.9)	85(23.5)	21(5.8)	4.24	.73
		66	0(0)	0(0)	2(.6)	47(13.0)	207(57.5)	86(23.8)	19(5.2)	4.20	.75
		total								4.23	.68
	so6	67	0(0)	0(0)	0(0)	22(6.1)	192(53.0)	115(31.8)	33(9.1)	4.44	.74
		68	0(0)	0(0)	1(.3)	22(6.1)	185(51.1)	120(33.1)	34(9.4)	4.45	.76
		69	0(0)	0(0)	0(0)	12(3.3)	179(49.4)	119(32.9)	52(14.4)	4.58	.77
		total								4.49	.69
	s3	70	2(.6)	0(0)	3(.8)	19(5.2)	212(58.6)	99(27.3)	27(7.5)	4.36	.73
		71	2(.6)	0(0)	3(.8)	24(6.6)	213(58.8)	97(26.8)	23(6.4)	4.31	.73
72		2(.6)	0(0)	2(.6)	27(7.5)	216(59.7)	92(25.4)	23(6.4)	4.30	.72	
	total								4.32	.65	
s4	73	0(0)	0(0)	3(.8)	14(3.9)	182(50.2)	126(34.8)	37(10.2)	4.50	.76	
	74	1(.3)	0(0)	3(.8)	31(8.6)	196(54.1)	97(26.8)	34(9.4)	4.35	.80	
	75	0(0)	0(0)	4(1.1)	24(6.6)	176(48.6)	121(33.4)	37(10.2)	4.45	.81	
	total								4.43	.69	
so2	76	0(0)	0(0)	0(0)	3(.8)	138(38.1)	145(40.1)	76(21.0)	4.81	.77	
	77	0(0)	0(0)	0(0)	9(2.5)	169(46.7)	146(40.3)	38(10.5)	4.59	.71	
	78	0(0)	0(0)	1(.3)	17(4.7)	182(50.3)	133(36.7)	29(8.0)	4.48	.72	
	total								4.63	.65	
s2	79	0(0)	0(0)	0(0)	23(6.4)	215(59.4)	101(27.9)	23(6.4)	4.34	.69	
	80	0(0)	0(0)	1(.3)	24(6.6)	225(62.2)	94(26.0)	18(5.0)	4.29	.67	
	81	4(1.1)	0(0)	0(0)	19(5.2)	216(59.7)	106(29.3)	17(4.7)	4.34	.65	
	total								4.32	.62	
③	s1	82	0(0)	0(0)	3(.8)	14(3.9)	212(58.6)	107(29.6)	26(7.2)	4.38	.71
		83	0(0)	0(0)	1(.3)	19(5.2)	222(61.3)	101(27.9)	19(5.2)	4.33	.67
		84	0(0)	0(0)	2(.6)	16(4.4)	211(58.3)	111(30.7)	22(6.1)	4.37	.69
		total								4.36	.63
	so1	85	1(.3)	0(0)	0(0)	9(2.5)	120(33.1)	142(39.2)	90(24.9)	4.87	.82
		86	1(.3)	0(0)	1(.3)	30(8.3)	185(51.1)	120(33.1)	25(6.9)	4.38	.75
		87	1(.3)	0(0)	2(.8)	26(7.2)	170(47.0)	123(34.0)	39(10.8)	4.47	.81
		total								4.57	.69
	so3	88	1(.3)	0(0)	1(.3)	15(4.1)	193(53.3)	122(33.7)	30(8.7)	4.46	.72
		89	0(0)	0(0)	2(.6)	32(8.8)	188(51.9)	115(31.8)	25(6.9)	4.36	.76
90		0(0)	0(0)	1(.3)	15(4.1)	198(54.7)	120(33.1)	28(7.7)	4.44	.71	
	total								4.42	.68	
s5	91	0(0)	1(.3)	2(.6)	21(14.1)	198(54.7)	92(25.4)	18(5.0)	4.19	.78	
	92	0(0)	1(.3)	3(.8)	74(20.4)	180(49.7)	83(22.9)	21(5.8)	4.12	.84	
	93	0(0)	0(0)	3(.8)	31(8.6)	191(52.8)	109(30.1)	28(7.7)	4.35	.78	
	total								4.22	.72	

continued

Factors	Components/Items	Frequency of Percentage							M	SD
		non	1	2	3	4	5	6		
s7	94	0(0)	0(0)	4(1.1)	70(19.3)	194(53.6)	75(20.7)	19(5.2)	4.10	.80
	95	0(0)	2(.6)	4(1.1)	83(22.9)	174(48.1)	80(22.1)	19(5.2)	4.06	.87
	96	0(0)	0(0)	2(.6)	62(17.1)	183(50.6)	90(24.9)	26(6.9)	4.20	.82
	total								4.12	.77
s6	97	1(.3)	0(0)	2(.6)	54(14.9)	163(45.0)	111(30.7)	31(8.6)	4.32	.85
	98	0(0)	1(.3)	6(1.7)	150(41.4)	130(35.9)	62(17.1)	13(3.6)	3.79	.88
	99	2(.6)	0(0)	2(.6)	42(11.6)	199(55.0)	99(27.3)	18(5.0)	4.25	.74
	total								4.11	.72
s9	100	0(0)	0(0)	1(.3)	55(15.2)	198(54.7)	87(24.0)	21(5.8)	4.20	.77
	101	0(0)	0(0)	2(.6)	57(15.7)	186(51.4)	94(26.0)	23(6.4)	4.22	.80
	102	0(0)	0(0)	0(0)	36(9.9)	203(56.1)	101(27.9)	22(6.1)	4.30	.73
	total								4.24	.71
s10	103	2(.6)	0(0)	1(.3)	40(11.0)	195(53.9)	98(27.1)	26(7.2)	4.30	.77
	104	2(.6)	0(0)	1(.3)	57(15.7)	185(51.1)	90(24.9)	27(7.5)	4.24	.82
	105	0(0)	0(0)	2(.6)	19(5.2)	173(47.8)	127(35.1)	41(11.3)	4.51	.78
	total								4.35	.72
④ s8	106	0(0)	0(0)	3(.8)	35(9.7)	207(57.2)	93(25.7)	24(6.6)	4.28	.76
	107	0(0)	1(.3)	4(1.1)	53(14.6)	191(52.8)	83(22.9)	30(8.3)	4.22	.85
	108	0(0)	0(0)	4(1.1)	37(10.2)	194(53.6)	94(26.0)	33(9.1)	4.46	.79
	total								4.32	1.19
s12	109	0(0)	0(0)	6(1.7)	55(15.2)	200(55.2)	77(21.3)	24(6.6)	4.16	.82
	110	1(.3)	0(0)	2(.6)	90(24.9)	181(50.0)	68(18.8)	20(5.5)	4.04	.83
	111	1(.3)	0(0)	4(1.1)	71(19.6)	193(53.3)	69(19.1)	24(6.6)	4.10	.83
	total								4.10	.75
s13	112	0(0)	0(0)	2(.6)	56(15.5)	192(53.0)	89(24.6)	23(6.4)	4.21	.80
	113	0(0)	1(.3)	6(1.7)	123(34.0)	147(40.6)	59(16.3)	24(6.6)	3.90	.95
	114	0(0)	0(0)	5(1.4)	47(13.0)	194(53.6)	85(23.5)	31(8.6)	4.25	.84
	total								4.12	.76
s14	115	0(0)	0(0)	2(.6)	31(8.6)	194(53.6)	101(27.9)	34(9.4)	4.37	.79
	116	0(0)	0(0)	4(1.1)	64(17.7)	186(51.4)	81(22.4)	27(7.5)	4.17	.85
	117	2(.6)	0(0)	4(1.1)	41(11.3)	205(56.6)	81(22.4)	27(8.0)	4.25	.80
	total								4.27	.75

① ability of developmental · positive parenting ② ability of playing a role as a citizen and social contribution ③ ability of self-under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④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growth, p=parenting, s=self-system, so=social competence

2) 문항변별도 분석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의 문항 변별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부모 참 역량」총점을 기준으

로 전체 어머니의 상위 33.3%에 해당하는 상위 집단과 하위 33.3%에 해당하는 하위 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 간의 하 위요소별 평균 차이 여부에 대한 t검정 결과는 <Table 8>과



Table 8. The Item Discrimination of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Factors	No. of Components	High(n=121)		Low(n=121)		t
		M	SD	M	SD	
Ability of developmental · positive parenting	1	4.91	.59	3.79	.51	15.69***
	2	4.87	.56	4.87	.56	17.19***
	3	4.91	.57	3.84	.40	16.91***
	4	4.69	.67	3.78	.52	11.78***
	5	4.50	.61	3.44	.48	15.00***
	6	4.86	.59	3.83	.47	15.00***
	7	4.76	.65	3.68	.46	14.90***
	8	4.70	.68	3.68	.40	14.25***
	9	4.58	.63	3.61	.46	13.69***
	10	4.85	.65	3.85	.41	14.33***
	11	4.99	.60	3.82	.44	17.35***
	12	4.50	.78	3.37	.54	13.15***
	13	5.10	.64	4.00	.53	14.40***
	14	4.69	.78	3.63	.50	12.67***
Ability of playing a role as a citizen and social contribution	1	4.93	.65	3.82	.39	16.15***
	2	4.71	.78	3.60	.47	13.54***
	3	4.25	.79	3.46	.56	8.95***
	4	4.83	.66	3.75	.39	15.40***
	5	4.92	.65	3.92	.42	14.16***
	6	5.12	.58	3.94	.39	18.70***
	7	5.14	.61	3.98	.42	17.12***
	8	4.78	.69	3.77	.43	13.70***
	9	5.16	.53	3.97	.37	20.06***
self-Ability of self-under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1	4.91	.58	3.86	.40	16.18***
	2	5.06	.54	3.87	.43	18.91***
	3	5.19	.52	4.11	.39	18.04***
	4	4.88	.54	3.91	.41	15.57***
	5	4.91	.57	3.93	.38	15.74***
	6	5.15	.54	4.02	.48	17.16***
	7	5.00	.60	3.88	.37	17.53***
	8	4.82	.59	3.70	.52	15.71***
Ability of self-growth and self-determination	1	4.74	.71	3.63	.53	13.79***
	2	4.75	.60	3.59	.46	16.82***
	3	4.81	.64	3.74	.44	15.09***
	4	5.00	.61	3.83	.39	17.75***
	5	5.08	1.65	3.72	.51	8.76***
	6	4.79	.65	3.59	.46	16.48***
	7	4.76	.76	3.64	.45	13.85***
	8	4.91	.73	3.75	.46	14.86***

\*\*\*p < .001

같다. 모든 하위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p < .001$ )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가 역량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잘 변별할 수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 참 역량」척도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를 개발하고 그 적절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은 자녀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 역량, 부모 자신의 심신을 개발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기체계 역량,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발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는 구인타당도, 내용타당도, 신뢰도, 문항의 양호도 검증 결과 모두 양호하였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 분석결과 도출된 4가지 하위요인으로는 '발달적, 긍정적 양육능력',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사회기여능력', '자기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 '자기 결정 및 자기 성장 능력'이었다. 먼저, '발달적, 긍정적 양육능력'은 아동의 발달 관련 지식과 적절한 양육방법 관련 내용 요소들로 구성된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관여하는 부모의 능력으로, 「부모 참 역량」 하위요인 중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 지식·기술·태도, 의사소통, 양육효능감(H. Cho & M. Kim, 2013; K. Chung, J. Kim, & M. Kim, 2003; Gilmore & Cuskelly, 2008; H. Kang & J. Park, 2011; K. Kang, 2009; H. Park & H. Koo, 2010; J. Park et al., 2011) 등 부모 역량 및 부모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온 역량이다. 즉, 자녀가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 특징과 욕구를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능력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고도 핵심적인 부모의 역량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에서도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K. Chung & E. Choi, 2013)으로 밝혀진 바 있다.

두 번째 요인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사회 기여 능력'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모의 능력이다. 이 요인은 OECD DeSeCo에서 제시한 생애 핵심역량 중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해당된다(OECD, 2005). Reder and Lucey(1995)는 부모 역량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시켰고 D. Jung과 W. Shin(2012)은 부모코칭역량 중 하나로 공동체 형성, 정보에의 개방성 등 관계 역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아 부모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역사회와의 소통, 사회협력,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참여(J. Kweon & I. Seo, 2008; C. Park & E. Lee, 2013; J. Park et al., 2011) 역량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앞으로 인간은 보다 폭넓은 문화나 정보 등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것이므로, 부모 또한 가정 내에서만이 아닌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역량이야말로 부모의 관심을 가족 내 문제해결에 제한시키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장(Doherty, 2000)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편 이 요인은 유아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의 다섯 요인 중 네 번째의 설명력을 가진 요인인 '공동체 생활 능력'(K. Chung & E. Choi, 2013)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자녀가 성장하여 학령기가 되면서 부모의 관심도 보다 공식적이고 다각적인 사회 제도와 기관으로 확장될 뿐 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돌봄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보다 자기 자신의 사회적 욕구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세 번째 요인으로 '자기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은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 혹은 부모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나아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부모로서 긍정적 자기인식 갖기와 같은 자기관리 및 자기이해(H. Cho & M. Kim, 2013; C. Park & E. Lee, 2013)를 도모하고, 타인이해, 공감, 대인관계 문제 해결, 주변 관계에 대한 효율적 반응·대처를 포함하는 사회적 기술(Azar, Lauretti, & Loding, 1998; Rychen & Salganik, 2001, 2003)을 갖는 부모의 능력과 관계된다. 부모의 올바른 자기인식 및 자기 이해와 적절한 타인과의 관계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 나아가 부모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겠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으로도 '자기이해와 대인관계 능력'요인이 도출된 바 있으나, 이 경우 「부모 참 역량」의 다섯 요인 중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K. Chung & E. Choi, 2013)이었던 점에서 학령기 자녀 어머니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대부분 초기 부모기에 해당되어 한 개인과 아내로서의 자기 정체성 이해에 부모로서의 정체성 이해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개인과 가족체계의 두 가지 차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S. Koh, 1997)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 적응 등의 어려움이(Belsky & Rovine, 1990; Jun &

Park, 1998) 자녀가 극적인 발달상의 변화를 보이는 생후 첫 5년 동안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 요인으로 ‘자기 성장 및 자기 결정능력’은 부모 자신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며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역량은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관리 기술, 내적 정서의 변화 및 성장, 부모의 자신감 및 장점 개발하기, 자기 성찰 등을 다룬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부모 자신의 내·외적 성장(K. Chung et al., 2003; Y. Kang & J. Kim, 2012; M. Kim, S. Park, & M. Park, 1999; O. Yang & Y. Kim, 2004), 적극적 대처행동 습득, 주체적 삶을 사는 능력 향상 등과 같은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의사결정 및 행동의 개념(J. Kweon & I. Seo, 2008; Y. Son, 2002)과 유사한 맥락의 개념이다. 부모 또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성찰하고 자기를 개발해나가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야말로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한 부모 발달을 통해 주체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사회에서 자신과 아동이 원하는 최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자원이 될 것이다. 학령기는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분리가 시작되는 시기로, 부모들은 이전보다 자녀에게 점점 ‘손을 놓게 되는’ 시기(Berk, 2009)이므로 자녀양육 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개발과 사회적 참여 역량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시기인 점은 자기 성장 및 자기 결정능력 증진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부모 참 역량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 역량은 단순히 자녀양육과 관련된 능력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의 일부 하위요소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사회 기여 능력’ 및 ‘자기성장 및 자기결정능력’ 요인에도 다소 높은 부하량을 보였으나, 개념적인 측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자기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에 포함시켰다. 이는 본 「부모 참 역량」척도 중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 요인은 사회적 기여 능력과 자기 성장 및 자기 결정능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요인들의 성격상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앞으로 요인 간의 개념적 독립성과 명료성을 위해 척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의 문항 양호도는 문항반응분포와 문항변별도로 나누어 살펴봐 왔는데, 문항반응분포는 문항들이 대체로 부적 편포를 많이 보이나 극단적인 평균이나 지나치게 낮은 표준편차를 보이는 문항이 없었다. 또한 문항 변별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

참 역량」총점을 기준으로 한 상, 하위 집단의 평균 차이가 모든 하위 요소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총 43개 하위요소가 각각 지식, 기술, 태도 문항으로 구성된 총 129문항의 본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는 문항 양호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는 어머니가 부모로서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고, 도출된 4가지 역량 요인을 각각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요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탐색해볼 수 있는 양호한 척도라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대도시와 인근 2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 해석상의 제한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표집을 통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2/3 이상 포함되어 있고 소득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연구 결과의 편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추후 폭넓은 교육 및 경제수준 집단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은 어머니이므로 아버지를 위한 「부모 참 역량」척도의 개발과 타당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하위요소별 지식, 기술, 태도 문항의 합을 하나의 요소로 보고 척도의 타당도와 양호도를 분석하였으므로 역량의 지식, 기술, 태도 측면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각 측면의 역량을 중심으로 구인을 밝히고 도구의 양호도를 알아보는 후속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른 요인에도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자기체계 및 사회적 역량 관련 일부 하위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도 척도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 참 역량」척도는 부모 역량을 자녀를 잘 양육하는 능력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부모 개인 및 사회적 능력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폭넓은 부모 역량의 개념으로 연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추출된 「부모 참 역량」요인과 하위요소들은 앞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부모 역량 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개발되었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와 함께 자녀의 연령 변화에 따른 부모 역량 비교 연구가 가능한 점도 또 다른 연구의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hn, J. Y. (2000). The effects of matern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zar, S. T., Lauretti, A. F., & Loding, B. V. (1998). The evaluation of parental fitness in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cases: A functional-contextual perspectiv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2), 77-100.
- Belsky, J., & Rovine, M., (1990). Pattern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Pregnancy to three year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19.
- Berk, L. E. (2009).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4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Booth, T. & Booth, W. (1994). *Parenting under pressure: Mothers and fathers with learning difficulties*.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 Carlson, C., Uppal, S. & Prosser, E. (2000). Ethnic differences in processes contributing to the self-esteem of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 4-67.
- Cho, A. R. (2005). A study of prepare measures about lower birthrate: Focused on the change of Korean women's ro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o, H. S., & Kim, M. H. (2013). A study of the organization and effects of a program increasing emotional parenting competency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3), 271-293.
- Choi, H. S. & Chung, O. B. (2001).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2), 1-15.
- Choi, Y. J. & Huh, J. E. (2006).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empowerment, self-help group, and networking practice with single mother.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3(2), 203-224.
- Chung, K. S., & Choi, E. S.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for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8(3), 225-257.
- Chung, K. S., Kim, J. H., & Kim, M. J. (2003). The effects of the empowering parents program on decreasing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hild Educare Research*. 9, 1-24.
- Chung, K. S., Roh, J. H. (2006). Implications for parent education of self-reflection on parent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4), 79-105.
- Chung, K. S., Yoo, M. S., Cha, J. R., & Park, H. K.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with young and school-age children through Meta-Analysi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9(3), 365-387.
- Cinamon, R. G. & Rich, Y. (2002).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work and family roles: Implic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Sex Roles*, 47, 531-541.
- Doherty, W. J. (2000). Family science and family citizenship: Toward a model of community partnership with families. *Family Relations*, 49, 319-325.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tzioni, A. (1993). *The spirit of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Press.
- Fletcher, A. C., Nickerson, P. & Wright, K. L. (2003). Structured leisure activities in middle childhoo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 641-659.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alinsky, E. (1987).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Cambridge, MA: Preseus Books.
-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Gilbert, L. A. & Brownson, C. (1998). Current perspectives on women's multiple rol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 433-448.
- Gilmore, L. & Cuskelly, M. (2008). Factor structure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using a normative sample.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8, 48-55.
- Harter, S. (2003).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M. R.

-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610-642). New York: Guilford.
- Hyun, M. S. (2004). Study on parental intelligence scale development in parent at childhoo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15-34.
- Jeong, J. H. & Park, J. Y. (2010). The effects of a family-focused transition program on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high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ir parents'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family empowerme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3), 77-101.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sions*, 25, 341-363.
- Joussemet, M., Landry, R., & Koestner, R. (2008).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parenting. *Canadian Psychology*, 49(3), 194-200.
- Jun, C. A., & Park, S. Y. (1998). Exploration of psychosocial variables related to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1), 95-105.
- Jung, D. H., & Shin, W. A. (2012).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parent coaching competences and develop scale for parent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6(1), 181-208.
- Kang, H. W., & Park, J. Y. (2011). Effects of a parenting support program for parent empowerment 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1), 1-25.
- Kang, K. J. (2009). A study on parent coaching experiences for strengthening parent skills of multicultural family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3), 111-125.
- Kang, Y. S., & Kim, J. N. (2012).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self understanding on parental ability, anger control, and self differentiation. *Journal of Brain Education*, 10, 106-128.
- Kim, B. Y. (2011). The action research for parent empower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Korea.
- Kim, H. K. (2007). Validation of the family quality of life scale for par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49, 349-363.
- Kim, M. K. (1994). A study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eer orientation of children according to age and sex. *Statistics Counseling*, 9(2), 9-23.
- Kim, M. N., Park, S. M., & Park, M. H. (1999). The effect of empowering parents program for children with difficulties in their 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Educare Research*, 5(1), 93-112.
- Kim, M. S. (2005).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The case of those with Preschoolers and School-ag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irchner, G. (2000). *Children's games from around the world*. Boston, MA: Allyn and Bacon.
- Koh, S. J. (1997). Parental strain, mastery, sex role attitude, and dyadic adjustment after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dual earner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7-32.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5). *Support policies for Korean Women's cultural enjoyment condition and provision*.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Korea.
- Kuczynski, L. & Lollis, S. (2002). Four foundations for a dynamic model of parenting. In J. R. M. Gerris (Ed.), *Dynamics of Parenting*. Hillsdale, NJ: Erlbaum.
- Kwon, J. H., & Seo, I. H. (2008). A Study on program design development for single mothers in Korea: An exploratory study for establishing design validit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4, 121-160.
- Lee, E. K. (2013). A study regarding wit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arental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for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S. (2011). A programming for empowering parent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3), 209-224.

- Lee, S. M. (2004). Women in citizen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Gender segreg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0(1), 163-193.
- Lee, S. R., Kwan, C. I. & Lee, H. L. (2009). A study on need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Children's developing stage: Focusing on parents with children at school age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9(4), 1-23.
- Maccoby, E. E. (1984).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al change. *Child Development*, 55, 317-328.
-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in, M. S., Oh, E. J. & Lee, S. Y. (2010). Tasks for improving re-employment servic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The report of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No, 8), 1-316.
- Ogbu, J. U. (1981). Origins of human competence: A cultural-ecolog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2(2), 413-429.
- Park, C. O., & Lee, E. K. (2013). A study regarding whit the development of a parental competence enhancement program for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3), 527-547.
- Park, H. S., & Koo, H. Y. (2010). Effects of core competency support program in parenting pole on sense of competence in parent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in parents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9(4), 411-419.
- Park, J. K., Seo, B. S. & Kim, E. R. (2013). The study on parental competenc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2(3), 179-202.
- Park, J. K., Seo, B. S., & Kim, H. R. (2011). The study for the factors of core competency and self-perception of parents in the car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54(1), 61-85.
- Park, Y. S. & Kim, U. C. (2000). The impact of changing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s' functioning: Comparison of primary, junior high, senior high and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8(2), 109-147.
- Park, Y. S. & Kim, U. C. (2001). The stress, coping and life-satisfaction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With specific focus o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77-105.
- Park, Y. S., Kim, U. C. & Kim, M. S. (2002). The experience of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of students and parents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8(2), 63-92.
- Peake, A. & Harris, K. L. (2002).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The influence of gender, career traditionality, and marriage pla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 405-421.
- Piaget, J. (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6)
- Reder, P. & Lucey, C.(Eds). (1995). *Assessment of Parenting: Psychiatric and Psychological Contributions*. London: Routledge.
- Rychen, D. S. & Salganik, L. H. (Eds.). (2001).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Gottingen, Germany: Hogrefe & Huber Publisher.
- Rychen, D. S. & Salganik, L. H. (Eds.).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Gottingen, Germany: Hogrefe & Huber Publisher.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walb, D. W., Nakawaza, J., Yamamoto, T., & Hyun, J. H. (2004) Fathering in Japanese, Chinese, and Korean cultures: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pp. 146-181). Hoboken, NJ: Wiley.
- Seo, B. R.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anger: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daily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Seol, J. H. (2005). The effectiveness of parents education programs for empowerment of parents with men-

- tal retard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6, 47-74.
- So, K. H. (2007). Competency' in the context of schooling: It's meaning and curricular implication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3), 1-21.
- Son, Y. N. (2002).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program for empowerment of families on stress, self-efficacy and coping capabilities of parents with disabled children: focused on the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chools for the mentally retarded. *A Journal of Ewha Education*, 12, 165-181.
- Song, K. S. (2000). Effects of the family supports program using problem-solving strategy on the parenting stress and the family empowerment of the parents with children of developmental dela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parrow, P. (1996). Too good to be true? *People Management*, 5, 22-27.
- Spencer, L. & Spencer, M. (1993). *Competence at work*. New York: John Wiley & Sons.
- Statistic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The Korean Women's life in 2013 statistics.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06961](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06961), 2014. 1. 13 output.
- Stevenson, H. W., Lee, S. & Mu, X. (2000). Successful achievement in mathematic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C. F. M. van Lieshout & P. G. Heymans (Eds.), *Developing talent across the lifespan* (pp. 167-183).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Teti, D. M. & Candelaria, M. A. (2012). Parenting competence.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vol.4). Social conditions and applied parenting* (pp.149-180). New York: Psychology Press.
- Turnbull, A. P. & Turnbull, H. R. (1997).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A special partnership*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Van Den Bergh, B. R. H. & De Rycke, L. (2003). Measuring the multidimensional self-concept and global self-worth of 6- to 8-year-old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 201-225.
- Vincent, C. (1996). Parent empowerment? collective action and inaction in education. *Oxford Review of Education*, 22(4), 465-482.
- White, B. (1975). Critical influences in the origins of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1(4), 243-266.
- Yang, J. S. & Shin, Y. Y. (2013). Suggestion for family welfare programs for men's role change in family. The Report of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8, 1-126.
- Yang, O. K., & Kim, Y. S. (2004).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silient parent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4, 225-261.
- Yang, S. M. (2000).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group program on empowerment for the parents with mentally retarded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S. N. & Shin, C. S. (2011). Work-family conflicts: Challenges of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3), 70-103.
- Yi, J. K. (2002). Reflection on a methodology of developing competency-based curriculum: based on a case of curriculum development for improving marketing competenc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8(4), 25-56.
- Yoo, M. S., Cha, J. R., & Chung, K. S. (2013). The understandings of happiness and its condition among children,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4), 81-104.

접수일 : 2014년 01월 15일

심사일 : 2014년 02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3월 18일